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모색

이윤진

1.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 정책의 필요성
 2.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 사례
 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 정책 제언
-

요약

- 조부모 손자녀 양육의 주요 특징은 맞벌이 가정에서 발생하며, 영아기(평균 생후 7.8개월)부터 시작되고, 양육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며(평균 21.0개월),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손자녀 양육을 하게 된다는 점임.
- 자녀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49.8%이며 월 평균 양육비는 약 57만원임. 조부모의 절반 가량은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시간, 장기간의 손자녀 양육을 함.
- 일반적으로 영아기 양육은 어린이집보다는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하고, 전문가들도 이 시기는 가정 내 양육이 바람직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함. 따라서 영아 양육은 가정 내 양육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 조부모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수당지급을 하고 있음. 서초구는 두 자녀 이상 가정 대상으로 영아(최대 생후 15개월까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24만원을 지급함.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호주에서도 교육받은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지급을 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을 조부모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shared parental leave to grandparents) 제도를 마련 중이거나 실시하고 있음.
- 조부모 손자녀 양육수당 정책은 부모에게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일터로 나갈 수 있다는 점, 손자녀는 안정된 양육자와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조부모는 양육 전문가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함.

* 본고는 이윤진·권미경·김승진(2015)의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의 내용을 일부 발췌, 재정리한 것임.

1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 정책의 필요성

가.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인 지원책

1)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 가정의 특성

- 조부모에게 영유아 자녀양육을 위탁하고 있는 가정 1,000사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맞벌이 가정이 90.2%(451사례)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옴.

〈표 1〉 조부모에게 영유아 자녀 양육 위탁 가정의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구분	계
전체	100.0(500)		
자녀와의 관계		월평균 가구소득	
엄마	94.2(471)	399만원 이하	19.8(99)
아빠	5.8(29)	400~499만원	33.4(167)
연령		500~699만원	38.2(191)
20대	20.2(101)	700만원 이상	8.6(43)
30대 초반	37.2(186)	직업	
30대 중반	27.6(138)	생산직	32.4(162)
30대 후반	8.6(43)	사무직	61.2(306)
40대	6.4(32)	주부	5.6(28)
지역규모		학생/기타	0.8(4)
대도시	38.0(190)	학력	
중소도시	39.8(199)	고졸	15.0(75)
읍·면	22.2(111)	전문대졸	25.8(129)
가구특성		4년대졸 이상	59.2(296)
맞벌이 가정	90.2(451)		
외벌이 가정	7.2(36)		
한부모 가정	2.6(13)		

출처: 이윤진·권미경·김승진(201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66-67.

- 연령은 30대 초·중반이 약 64%를 차지하며, 월평균 소득은 500~699만원이 38.2%로 가장 많았음.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고, 4년제 대졸 학력이 절반 이상임.

- 응답자가 대부분 여성임(자녀의 어머니)을 고려할 때, 고학력, 고소득의 중산층 가정이라 볼 수 있음.
- 월 평균 가구소득은 배우자와 합산한 것으로, 고소득의 의미를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

2)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 이유

- 조부모에게 영유아 손자녀를 위탁하는 주된 이유는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 “직장생활(또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옴(1순위 기준).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 적응이 힘들까봐”는 3순위임.
- 보낼만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이 없어서, 기관 이용의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대리양육자의 고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등으로 조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위탁한 사례는 매우 적게 나옴.

〈표 2〉 조부모에게 영유아 자녀 양육 위탁 이유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전체	100.0(500)	-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 적응이 힘들까봐	21.8	40.4
② 직장생활(또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서	31.6	51.6
③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	32.2	65.6
④ 대리양육자의 고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3.0	11.2
⑤ 혼자 양육하는 것이 힘들어서	4.4	11.0
⑥ 주변에 보낼만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이 없어서	0.4	3.6
⑦ 어린이집, 유치원의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2.4	7.4
⑧ 어린이집, 유치원의 비용이 부담되어서	0.4	2.6

출처: 이윤진·권미경·김승진(201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82.

-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을 위탁한 가정의 욕구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충족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어 보임.
- 평균적으로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시작하는 시기는 생후 7.8개월이며 현재(설문조사 실시 기준) 만 2.4세로, 손자녀의 양육기간은 평균 21.0개월임.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일찍 시작되고 지속성을 띤다는 특성을 지님(이윤진·권미경·김승진, 2015).

- 생후 7.8개월의 어린 자녀를 기관에 맡기는 것이 불안하고, 이러한 불안감은 조부모도 마찬가지임.
 -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 적응이 힘들까봐”(30.5%), “손자녀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30.5%),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 26.6%(1+2순위에서는 가장 높게 나옴) 순으로 조부모도 응답함.
- “직장생활(또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높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함. 자녀도 잘 키우고 싶고 자신의 일도 계속하고 싶은 일-가정 양립의 욕구를 강하게 갖고 있음.
- 맞벌이 가정에서 영아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현실을 반증함.

나. 영아기의 양육환경: 가정 내 양육

- 부모 대신 영아 자녀를 돌보는 제공자로 조부모가 압도적인 1순위임(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 2012: 85).
 - 영아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조부모를 응답한 비율이 높음.
 - 1세 미만 82.6%, 1~2세 미만 74.2%가 필요한 대리양육자로 조부모를 꼽음.
 - 자녀가 2~3세가 된 후 부터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더 많이 꼽음.

〈표 3〉 최연소 자녀 연령별 가장 필요한 양육 제공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1세 미만	1~2세 미만	2~3세 미만	3~4세 미만	4~5세 미만	취학전 (5세)
조부모	82.6	74.2	30.6	4.8	0.6	0.2
친인척	4.1	4.4	2.4	0.8	0.3	0.2
탁아모 등 비혈연인	1.4	1.4	1.0	0.5	0.1	-
가정어린이집	4.6	10.8	24.8	12.9	4.3	0.6
가정어린이집 외 어린이집	1.7	5.6	38.6	70.1	37.9	9.0
유치원	-	-	0.4	9.9	56.1	89.0
(반일제) 학원	-	-	0.1	0.3	0.5	1.0
부모만 가능	5.6	3.6	2.1	0.7	0.3	0.1
계(수)	100.0 (2,525)	100.0 (2,525)	100.0 (2,526)	100.0 (2,527)	100.0 (2,527)	100.0 (2,527)

출처: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85.

- 전문가들도 어린 영아기의 애착 관계가 이후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기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함. 따라서 어린 영아기는 기관에서의 집단 양육보다는 가정에서의 개별양육이 바람직하다고 봄.

다. 고령인력의 일자리 창출

- 조부모 대부분은 ‘비자발적’으로 영유아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음.
 - “자녀의 부탁으로 양육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76.0%임.
 - 조부모의 영유아 손자녀 양육현황을 보면, 평균 일일 7.87시간, 주당 양육일수는 5.25일, 주당 양육시간은 42.52시간임.
 - 일반 근로자의 하루 8시간, 주 5일 주당 40시간의 근로패턴 및 시간과 거의 유사함. 이는 사무직 종사자 부모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자녀의 근무시간과 조부모의 양육시간은 연동된다는 것을 의미함.
 -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조부모는 절반이 채 안 되며(40.8%), 받는 경우 월 평균 비용은 약 57만원으로 집계됨.
 -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도 혈연양육자(대부분 친·외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가 63.2%로 훨씬 많았으며 정기적 지불은 24.2%에 그침(서문희 외, 2012: 426).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양육비는 약 20만원~34만원으로 보고됨(서문희 외, 2012: 427).
 - 그러나 비혈연 양육자의 월 평균 양육비는 약 58만원으로 조부모의 양육비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됨(서문희 외, 2012: 442).
- 조부모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200~299만원이 30.0%로 가장 많고, 300~499만원이 28.4%, 150만원 미만이 17.6% 순임.
 -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조부모 가구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다가 6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자녀로부터 받는 양육비는 월 55만원으로 평균보다 낮음.

〈표 4〉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비 현황과 월 평균 양육비

단위: %(명), 만원

구분	양육비 현황			계	정기적 받는 경우 월 평균 양육비				계	평균
	정기적 받음	비정기적 받음	받지 않음		30 만원 이하	31-50 만원	51- 100 만원	100 만원 이상		
전체	49.8	27.8	22.4	100.0(500)	22.9	37.8	35.7	3.6	100.0(249)	57.21
가구소득										
150만원미만	62.5	25.0	12.5	100.0(88)	25.5	38.2	34.5	1.8	100.0(55)	55.09
150-199만원	51.5	27.9	20.6	100.0(68)	17.1	40.0	40.0	2.9	100.0(35)	57.71
200-299만원	50.0	30.0	20.0	100.0(150)	17.3	38.7	40.0	4.0	100.0(75)	59.80
300-499만원	44.4	29.6	26.1	100.0(142)	31.7	33.3	31.7	3.2	100.0(63)	53.33
500만원이상	40.4	21.2	38.5	100.0(52)	19.0	42.9	28.6	9.5	100.0(21)	64.29
$\chi^2(d)$	17.33(8)*				0.87(4)					

출처: 이윤진·권미경·김승진(201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95-97
표 재구성.

* $p < .05$

□ 조부모의 양육수당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

-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령인구가 증가함.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평균 연령은 60.45세로(이윤진 외, 2015: 97), 일할 수 있는 연령대임.
- 그러나 영유아 손자녀 양육을 맡게 되면서-그것도 비자발적으로 -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주당 평균 42.52시간을 손자녀 양육을 위해 할애하지만, 자녀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설사 받더라도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임.
- 자녀가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맞벌이 가정의 어린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수당 지원이 필요함. 이 때, 조부모가 저소득층인 경우, 수당 지원이 필요함.

2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 사례

가. 국내

1) 광주광역시의 ‘손자녀 돌보미 사업’

□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조부모 손자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임.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연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음.

□ 지원대상 조부모

-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의 조부모; 건강이 양호한 70세 이상 조부모도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광역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지원대상 가구

- 다자녀의 맞벌이 가정 또는 조손가정
 - 전자의 조건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의 맞벌이 가정 중 전국가구 100% 이하 가정
 - 후자의 조건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가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
- 지원대상 우선 순위는 ① 소득수준이 낮은 맞벌이 가정 또는 조손가정, ② 만 8세 이하 손자녀 친형제를 두 명 이상 돌보는 조부모, ③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④ 초등학교 1학년생을 돌보는 조부모 순임.
- 아이돌보미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며 모니터링 실시 후 사실과 다를 경우는 지원을 중단함.

□ 지원대상 조부모 교육: 손자녀돌보미 양성교육

- 조부모의 양성교육과정과 현장실습 과정을 수료하고 손자녀돌보미로 등록 후 활동할 수 있음. 양성교육은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가 담당함.
 - 양성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이며 출석율 70%이상의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함. 양성교육에 참가하는 조부모에게 교통비와 식비로 2만원을 지급함.
 - 양성교육 외의 간담회나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표 5〉 광주광역시 손자녀돌보미 양성교육과정(2014년)

차수	첫째 날		차수	둘째 날	
	시간	내용		시간	내용
1	09:35~10:15	동화를 활용한 세로토닌 교육	1	09:35~10:15	영유아기 뇌발달의 조부모 역할
2	10:15~10:55		2	10:15~10:55	
3	11:05~11:45	영유아의 영양 관리의 이론과 실제	3	11:05~11:45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예절 교육
4	11:45~12:25		4	11:45~12:25	
점심	12:25~13:10	여성단체회관 4층			
5	13:10~13:50	변화하는 시대에 지혜로운 조부모 되기	5	13:10~13:50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기
6	13:50~14:30		6	13:50~14:30	
7	14:40~15:20	손자녀와 조부모 간 바람직한 관계 형성	7	14:40~15:20	오감톡톡 책 이야기
8	15:20~16:00		8	15:20~16:00	
9	16:00~16:10	수료식	9	16:00~16:10	수료식

출처: 이윤진·권미경·김승진(201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44.

□ 지원금액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않는 영유아를 종일 돌보는 조부모에게는 월 25만원,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초등학교 2학년생 이하를 돌보는 경우는 월 10만원을 지원함.

2) 서초구의 ‘손자녀 돌보미 사업’

□ 지원배경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원활하게 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부모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고, 중장년 여성에게는 돌보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함.
- 서초구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함. 2015년의 사업 예산은 약 17억원임.

□ 법적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 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건강가정기본법 제 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 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함.

□ 지원대상

-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최근 1년 사이에 연속거주)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막내가 15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조모 또는 외조모가 지원할 수 있음. 조모의 나이제한은 없음.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는 ① 신규신청가정 ② 맞벌이가정 ③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양육가정 ④ 기존지원가정 순임.

□ 지원대상 조부모 교육: 손주돌보미 양성교육

- 손주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활동할 수 있음. 손주돌보미 양성교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총 25시간으로 편성·운영됨(표 6 참조).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양성교육을 담당함.

〈표 6〉 서초구 손주돌보미 양성교육과정(2015년)

구분	시간	내용	강사	준비물
4/20	09:30-10:30	센터소개, 사업소개, 교육과정 안내	이00	
	10:30-12:30	황혼 육아 스트레스 관리법 (심리치유, 황혼건강운동, 레크리에이션)	하00	
	12:30-13:30	점심시간		
	13:30-15:30	영유아 이유식, 식습관 지도	김00	
4/21	13:30-16:30	영유아 돌봄의 실제		
	16:30-17:30	활동일지 작성 및 서비스 신청안내		
4/22	13:30-17:30	영유아 오감발달 놀이지도	김00	
4/23	09:00-12:00	베이비마사지	조00	색종이 (빨,노,파) 수건
	12:00-13:00	점심시간		
	13:00-16:00	영유아 동화 구연 & 손유희	김00	
	16:00-18:00	영유아 응급처치 지도	전00	
4/24	09:30-12:30	영재 종이접기 실습	이00	가위
	12:30-13:30	수료식	이00	

출처: 이윤진·권미경·김승진(201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43~44.

□ 지원금액

- 손주돌보미 양성교육 25시간을 수료한 조모에 한해 시간당 6,000원, 최대 월 240,000원(40시간 활동)을 지원함.

□ 손주돌보미 양성 현황

- 2011년 기준 손주돌보미 지원자수는 25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376명, 2014년 42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 사업의 수요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2014년 기준, 손주돌보미 양성과정을 이수한 조모는 총 926명임(표 7 참조).
- 손주돌보미 교육에 지원한 조부모가 모두 손주돌보미로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2014년 기준으로 지원자의 약 63%가 손주돌보미로 활동함.

〈표 7〉 서초구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 양성자 수(2010~2014)

단위: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41	165 (손주 25)	169 (손주 98)	423 (손주 376)	427 (손주 427)	1,325 (손주 926)

출처: 이윤진·권미경·김승진(201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49.

나. 국외

1) 호주

- 호주 정부는 조부모가 TAFE¹⁾의 영유아 교육 코스 3단계 이상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손자녀의 주양육자로 활동하면 양육수당(Grandparent Child Care Benefit)을 지급하고 있음.
 - 양육수당은 손자녀 1명 기준으로 주당 최대 50시간까지 지원함.
 - 자격조건은 손자녀와 직접 혈연관계인 조부모뿐 아니라 간접 관계인 조부모(조부모 가정 이 재혼가정인 경우)도 대상이 됨. 단,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주양육자이어야 함.
 - 조부모가 노령연금, 의료보험금 등의 16개 종류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양육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음. 다시 말해서, 16개의 정부 지원금 중 하나도 받고 있지 않다면 양육수당 전액은 받지는 못함.
 - ‘조부모 어드바이저’(Grandparent advisers)를 배치하여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1)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의 약자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과정을 의미함.
글로벌메이트 홈페이지(<http://www.goglobalmate.com/#!tafe-/cxpl>, 검색일: 2015년 10월 24일)

2) 유럽

- 유럽에서도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증가하고 있음. 또, 높아지는 기대수명과 경제적 부담으로 일을 계속하는 조부모가 증가하고 있음.
 - 조부모도 손자녀의 육아와 일을 양립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함.
- 유럽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 정책으로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있음(중앙일보, 2016. 4. 22).
 - 조부모의 직접적인 양육수당 정책은 아니지만, 자녀(부모)의 유급 육아휴직을 조부모가 대신 사용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수당 지원이라 볼 수 있음.
 - 독일은 급하게 손주를 돌봐야 할 사유가 생기면 조부모에게 최대 10일간 유급휴가를 줌.
 -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 중 손자녀가 있는 조부모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가 있음(스페인, 호주의 민간 은행)
- 영국은 자녀(부모)의 육아휴직제도를 조부모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중임.
 - 영국은 한국처럼 육아휴직을 부모가 나눠 쓸 수 있음.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육아휴직 기간은 52주임.
 - 이 제도를 조부모까지 확대해 3대를 잇는 가족 공동 육아휴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임.
 - 부모가 불가피한 사유로 육아휴직을 단축하거나 일을 계속해야 할 때 조부모가 부모에게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을 활용해 휴직할 수 있음.
 - 이 때, 조부모에게 주당 139.58파운드(약 23만8000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됨.

3) 일본

- 일본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수당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아베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3세대 동거(조부모, 부모, 손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함.
- 2015년 10월 7일, 아베 정부는 제3차 개각을 단행하면서 「1억총활약」이란 새로운 핵심정책을 내놓음.²⁾

2) 일본의 「1억총활약」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글로벌 사회정책브리프 “일본의 1억총활약이란 무엇인가-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2016. 3. 21)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 1억총활약은 50년 뒤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한다는 의미로써, 정부가 청년, 노령자, 여성, 남성, 장애인, 난치병자, 실패경험자 모두를 포용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임.
 - 1억총활약 정책은 경제정책,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으로 구분됨.
- 1억총활약 정책을 보면,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은 맞물려 있음.
 - 희망 합계출산율 1.8 및 고령자 돌봄에 의한 실업 제로라는 목표 설정
 -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육아 및 고령자 돌봄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임.
- 출산장려와 경제활성화라는 두 개 토끼를 잡기 위해서 육아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이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 구축’을 제시함.
 - 3세대 동거 및 근거(近居) 촉진
 - 3세대(조부모, 부모, 자녀)의 동거 또는 근처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3세대 동거를 위한 주택 건설, UR³⁾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지원함.

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 정책 제안

가.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손주돌보미 사업 추가

- 영아는 기관보다는 가정 내 양육이 바람직하고 부모들도 이를 희망하지만, 민간이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마음놓고 사용하기란 많음.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1년의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직장으로 복귀할 시기에 자녀는 기관을 보내기에는 아직 어린 영아임.

3)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Urban Renaissance Agency, UR)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유사한 기구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부모가 아이돌보미와 손주돌보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이돌보미(36.3%)보다 손주돌보미(63.7%)를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원대상(안)
 - 부부 모두가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맞벌이 가정 중 영아(만 2세)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신체 건강한 조부모로, 나이 제한은 없음(아이돌보미와 동일).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이지만, 손주돌보미는 영아(만 2세) 손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으로 제한함.
 -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양성교육 80시간 및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한 조부모
 -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조부모는 이에 준하는 양성과정을 별도 마련 가능
- 지원 우선순위(안)
 - 다음의 지원 우선순위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정책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①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②조부모가 자신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 ③조부모가 돌보는 손자녀 수가 많은 가정 ④조부모가 돌보는 손자녀가 생후 12개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인 가정 ⑤조부모가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 순임 (표 8 참조).
 - 앞의 내용과 종합해 보면,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영아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가 지원대상 1순위임.

〈표 8〉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수당 지급 시 1순위 지원 대상 가정

단위: %(명)

중점 사항	계
전체	100.0(1,000)
가구소득이 낮은 맞벌이 가정	59.4
조부모가 자신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	13.0
조부모가 돌보는 손자녀 수가 많은 가정	10.0
조부모가 돌보는 손자녀가 생후 12개월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가정	9.5
조부모가 돌보는 손자녀가 어린 가정	8.1

출처: 이윤진·권미경·김승진(201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46.

□ 지원 비용(안)

-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을 동일하게 이수한 조부모는 아이돌보미와 동일한 조건과 비용을 제공한다.
- 영아 손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아이돌보미의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조건과 비용을 적용함.
- 영아 손자녀가 어린이집을 시간제로 이용하는 경우, 아이돌보미의 시간제 종합형 돌봄서비스 조건과 비용을 적용함.
- 영아 손자녀가 어린이집을 맞춤형으로 이용하는 경우(종일제 이용이 아닌 경우), 아이돌보미의 시간제 일반형 돌봄서비스 조건과 비용을 적용함.
- 손자녀가 어린이집을 종일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중복지원).

□ 손주돌보미 사업을 아이돌보미 사업과 동일하게 추진하되 혈연관계인 조부모 수당 지원에 대해 재정 누수, 도덕적 해이 등의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정함.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음.

<표 9> 손주돌보미 사업(안)

목적		1. 일-가정 양립 2. 노령인구의 일자리 제공 3.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대상		영아(~만 2세까지)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신체 건강한 조부모 *나이 제한 없음		
지원 가구		1. 부모 모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맞벌이 가정 2.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양성교육 80시간 및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한 조부모 *여건에 따라 양성과정은 조정 가능하나 지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지원 제외 대상		영아 손자녀가 어린이집을 종일제로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종류	종일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비용은 부모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시간제	일반형돌봄 서비스		영아 손자녀가 어린이집을 맞춤형(일일 7시간)으로 이용하는 경우 - 시간당 6,500원, 지원시간 연 480시간
		종합형돌봄 서비스		영아 손자녀가 어린이집을 시간제(월 40~80시간)로 이용하는 경우 - 시간당 7,800원, 돌봄 + 가사서비스 제공

주: 비용은 2016년도 아이돌보미 단가임.

나. 부모의 육아휴직제도를 조부모가 대신 사용

-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우리 현실에서 검토할 만한 정책이라 사료됨.
 - 부모는 계속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을 조부모가 사용하는 경우 조부모에게 지급해야 하는 육아휴직 비용, 인정 기간, 직장에서의 월급 등이 풀어야 할 과제임.

다. 일하는 조부모의 (손자녀) 육아·일 양립 정책 수립 필요

-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일하는 조부모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또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일하는 조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위탁하는 가정도 증가할 것임.
 - 일하는 조부모가 갑자기 손자녀 양육을 해야 하는 사유가 생기면, 사용할 수 있는 ‘조부모 손자녀 육아휴직제도’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함.
 - 그러나 조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위탁하기 보다는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 정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함.

라. 3세대 동거 가정 지원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조부모, 부모, 손자녀 3세대 동거 가족 또는 근거(近居)가족을 위해 주택 지원이나 조부모 손자녀 양육수당 지원 정책을 제안함.
- 조부모, 부모, 손자녀 3세대 동거가족 또는 근거(近居)가족은 영유아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배려심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야 함.
 - 조부모의 양육경험이 있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노인을 우호적으로 대하며(조윤주, 2009) 조부모와 부모 관계가 좋으면 조부모와 손자녀의 친밀감도 높고 손자녀의 정서와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한정란·김귀자, 2003).

마. 결론

- 일하는 부모에게 자녀양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음. 육아는 온 마을이 필요로 하는 소위, ‘손이 많이 가는’ ‘품이 많이 드는’ 특성을 지닌 사회적 과제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 확충 노력과 더불어 가정에서 개별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다각적인 육아정책이 필요함.
-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 정책도 이러한 차원에서 필요하며 더 나아가 고령화 사회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노령인구에게 일자리 제공이란 측면에서 정책 도입을 제안함.

● ● ● 참고문헌

-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2016. 3. 21). “일본의 1억총활약이란 무엇인가-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권미경·김승진(201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조운주(2009). 성인 손자녀의 조부모 동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1-11.
- 중앙일보(2016. 3. 23). 영국, 조부모도 육아휴직 추진.
- 중앙일보(2016. 4. 22). 황혼 육아 늘면서...유럽은 조부모도 육아휴직.
- 한정란·김귀자(2003). 부모의 노인 및 조부모에 대한 태도와 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친밀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vol. 19, 봄호, 61-82.